

캐나다 기행문

(1995. 4. 11 ~ 5. 11)

김 주 범*

1. 캐나다 도착

비행장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하는데 너무 쉬워 어리둥절하였다. 이민간 딸아이 식구들의 선물이며 먹을것들을 네 보따리나 만들어 짐이 제법 많아 통관걱정을 했는데 여자세관원이 신고서만 받고 그냥 나가라고 손짓해 60~70년대에 심하게 통관절차를 받은 경험으로 보아 어리둥절하기까지 하였다.

사위와 딸과 손녀들이 마중나왔다. 정말 반가웠다. 날씨는 맑고 별은 따가울정도다.

집까지 가는 귀로에 가로 양측에 있는 가옥들은 별장을 방불케 한다. 잘가꾼 잔디밭이며 각양 각색의 꽃이며 정성들여 가꾼 나무들이며 아담한 집들이 마치 별장과도 같다. 도로에는 차가 많지도 적지도 않게 넉넉하게 바쁘지 않게 다니며 전조등은 켜져있고 교차로에서는 서로 양보하며 보행자 우선의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2. 주 택

시내 중심가의 콘크리트 집을 제외하고는 많은 주택이나 건물(상점)들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짓고 있는 집들도 나무로 짓고 있었다. 시내 공원이며 시외를 좀 벗어나면 하늘을 찌를듯한 거목들의 숲이어서 나무는 대단히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집들은

기둥을 세우고 벽은 안팎으로 하드보드를 붙이고 창틀등은 규격품을 갖다 끼우고 지붕은 나무판조각을 붙이고 취향에 따라 페인트 칠을 하면 멋있는 집이 된다. 땅은 아직도 시내 곳곳에 얼마든지 있어 주거단지가 건설되고 있었다.

분양광고가 길에 또는 신문에 많이 나는데 1침실 주택은 10만\$(캐나다 1\$=550원)에서 12만\$이고 2침실 주택은 15만\$ 내외이다. 내부시설은 주거기본시설은 다 되어 있고 세물장이며 난방은 자동조절 전기난로이다. 공동주택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간혹 도둑이 들어서 오히려 집 앞 길가에 주차시키는 것이 안전하단다.



사진 1. 나무로 지은집(건물 벽체는 하드보드로 간단히 시공)

길가 주차도 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커서 주차면적이 넉넉하다. 각자 자기집 잔디는

* 정회원, 남원건설엔지니어링 부사장

손질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붙게 되어 있어 일요일이면 집집마다 잔디를 깎는 기계소리가 시끄럽다.

3. 공 원

땅이 넓은 곳이라 곳곳에 공원이 많았다. 어린이 놀이터며 공설운동장, 정구장, 하키장 등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골프장도 갖추어서 있었다. 밴쿠버 시내의 큰 공원으로 중앙공원, 퀸 에리자베스공원, Stanley 공원, 부리티쉬 콜럼비아대학 공원, Light house 공원, Capilano 공원 등등이 있는데 아름답리 고목 원시림이 하늘을 찌르고 더러는 늙어죽은 나무도 많이 보이는데 밑둥에서 새싹이 나와 원목에 기대어 다시 자라고 있는 것이 나무도 대를 잇나보다. 나무숲에 들어가면 축고 으시시하기까지 하다. 딱따구리가 나무찍는 소리가 간간히 들린다. 응달에는 고사리와 식물이 활기차게 자란다. 비둘기도 많지만 까마귀가 제법 많이 보인다.



사진 2. 고목에서 난 새싹

바닷가에 연해 있는 공원 잔디 밭에는 기러기도 제법 많이 벌레를 잡고 있었다. 공원내의 의자들에는 기증자의 이름과 기증내역이 쇠판에 각자하여 붙어 있었다.

산책로는 잔자갈을 깔아 자연미를 주었다. 어린이 놀이기구는 모나지 않게 둥그스럼하게 잘다듬어져 있고 회전기구는 마찰이 없게 잘 돌도록 로라를 사용하였으며 진동체는 차스프링을 이용하여 유연하게 흔들리도록 하였고 특히, 볼트는 PVC 캡을 씌어 안전을 도모하는 자상함이 엿보였다. 들던대로 어린이 천국임을 이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4. Sky Train(고가 전철)

밴쿠버 시내에는 전철노선이 하나밖에 없다. 동남측 New Westminster 역에서 부터 서북측 Seabus역까지 사이인데 노선의 대부분이 고가이고 극히 일부가 지하로 되어 있어 아마 Sky Train이라고 부르나보다. 차량은 경량에 자그마한 것을 4량 연결하였고 차내 의자는 이용자인 서양인의 체격에 비해 아주 작아 내 체격이 아주 적당하였고 전차는 운전수없이 운행되고 있다.

운임은 2구역에 2.25\$인데 이는 출퇴근 시간에 그렇고 이 시간외에는 구역구별없이 1.5\$이며 표는 구입시간부터 90분간 유효하고 전철연계버스도 이 표로서 탈 수 있게 되어 있다. 배차간격은 출근시간에는 2분 30초 마다이고 기타 시간에는 5분마다 다니는데 서울의 전차에 비하면 너무나 한가롭게 다닌다고나 할까? 매표원이나 검표원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신체 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고 휠체어 통로도 잘 만들어져 있다.

전철고가노선은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흙 잡을데 없이 콘크리트가 매끈하게 시공되었고 피아에 얽힌 빔들은 어긋남이 없이 이가 잘 맞아 있었다. 이 궤도는 도로상이 아닌 주택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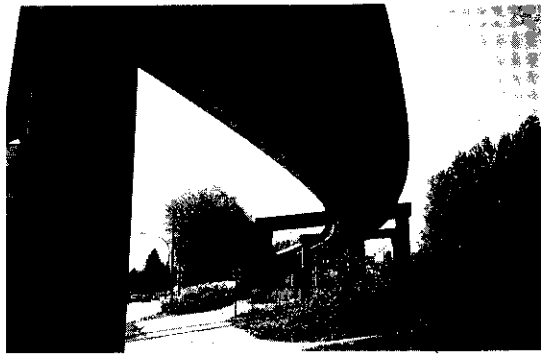


사진 3. 고가전철 노선

5.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인류학 박물관

U.B.C 대학 부속 박물관으로 1976년 새 건물을 지었다고 쓰여 있다. 진열품을 보면 원주민들의 생활용품으로 색채가 화려하며 목각품과 모피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집 앞에 세운다는 정교하게 조각을 한 나무기둥에는 사람, 짐승, 새 등이 겹겹이 새겨져 있다. 내 눈에 멋이 있어 보이는 것은 여자의 가죽신발인데 넓적하고 부드럽고 무늬와 수를 넣은 것이 안온해 보였다. 해외 여러나라에서 수집한 수장품에 우리나라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진열위치가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우리나라 것은 어딘가 영성해 보였고 품질도 재대로인 것이 보이질 않았다. 부채만 하더라도 좀 조잡한 것이었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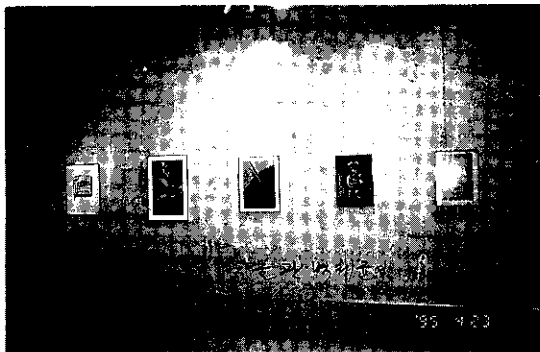


사진 4. U.B.C. 박물관 벽체 균열

로비에 나와 의자에 앉아 쉬는데 내 눈에 띈 것은 콘크리트벽에 균열이 나 있고 물이 스며들어 백태까지 나 있는데 그 상태 그대로 그 벽에 그림을 전시하였다. 콘크리트 벽체는 거꾸집을 뎀 그대로 아무처리도 하지 않은것이 감추어진것보다 보기가 훨씬 좋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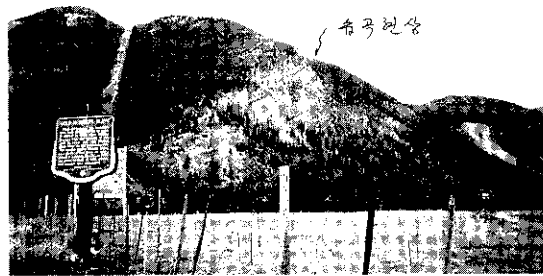


사진 5. Manning park의 습곡

6. Banff.

밴쿠버에서 Banff까지는 약 1000km이며 록키산맥에 속한다. 아침 10시경 준비를 끝내고 출발하여 동쪽으로 Fraser 강하류 남측에 위치한 1번 국도를 따라 달렸다. 강 연안이라 넓은 평야가 조성되었고 도시근교인지라 야채와 꽃농원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었다. hope 시내를 지나 경관좋은 3번 국도를 남동행하는 우회도로를 탔다. Manning은 과거 금광으로 번창하던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명패만이 남아 있다. 산사면에 나타나보이는 습곡의 현상이 보기 좋았다.

Princetor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다. 한참을 가니 산 속에서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선별장이 있는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다. 의아해질 수 밖에 없었고 어떻게 산 속에서 골재를 채취할까 신기한 일이었다.

97번 도로를 들어서 북상하면서 Pertiction에 있는 Skaha 호수 서측산 절토면을 보니 순모래로 이루어졌다. 이 호수와 연하여 Okanagan 호수가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였는데 산절토면

이 니토층으로 되어 있었고 수직으로 되어 있다. 이 호수의 길이는 약 110km에 폭은 약 5km나 되는 세장한 모양이다. 호수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는데 노랗게 물들어 있는 것이 개나리인가 싶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97A번 우회도로로 가는데 Sicamous 거의 다 가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이 차단되었으니 돌아가란다. 97B로 Salmonarm을 거쳐 가게 되어 빨리가고자 했던것이 1시간을 잃은셈이 되었다. Columbia 강가의 Revelstoke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1번 국도를 따라 동북진하였다. Glacier national park를 지날때는 눈사태를 유도하는 터널을 경사지게 만들어 그 위로 눈사태가 따라 내려가도록 하여 골짜기마다 교통에는 지장이 없게 하였다.

날씨는 점차 어둡고 길에 차는 드물게 다니고 숲은 짙게 길 양옆에 우거진 것이 좀 무섭기도 하였다. 고요한 산 속 숲속길에 자동차 엔진 소리만 계속 들릴 뿐. Banff까지 약 250km를 차 불 빛을 앞세우고 달려 도착한 것이 이곳 시간으로 밤 12시(시차로 1시간이 빠름) 가까이 되었고 예약한 숙소에 짐을 풀었다. 18일 아침 Sulphur Mt. Gondola로 Cable car를 타고 올라갔다 관광객이 많을때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데 바로 탈수가 있었다.

산높이는 해발 2281m이고 밑에서부터 698m 차였다. 산정에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고 춥고 바람이 불고 있었으며 주위에 있는 모든 산들은 하얗게 눈에 덮혀 있었다.

이곳의 기반암은 퇴적암층이라 층리가 멋있게 결을 이루었고 층리두께는 제법 두껍고 암석이 단단하여 건축재로 쓰이고 있었다. Banff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의 높이는 3000m정도이고 Minnewanka 호수는 눈에 덮혀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를 연상케 하였다. 이 호수의 물은 에메랄드색조를 띠는 아름다운 호수란다. 저녁에 숙소 배란다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떠돌이 사슴들이 먹을 것을 달라하여 과자를 주면서 새로 돌아오는 뿔을 만졌더니 따뜻하다기 보다는 뜨거운 편이다. 아마 그래서 사슴뿔이 좋다고 하나보다. 이곳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많아 일본인 식당이 번창하단다.



사진 6. Banff시를 둘러싸고 있는 퇴적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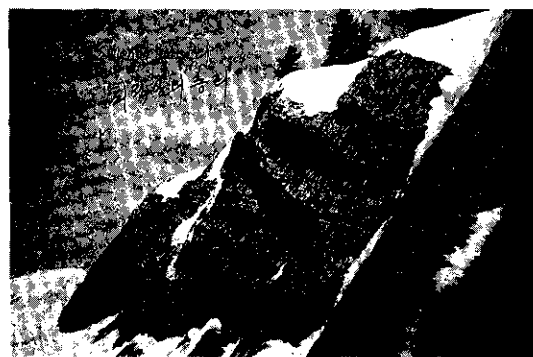


사진 7. 퇴적암의 층리

7. Lake Louise

이 호수는 Mt. Victoria와 Mt. Lefroy(EL 3370m) 사이의 빙원이 녹아내린 물로 이루어진 호수이며 호수상류를 바라보면 산세가 V자 모양으로 퍼져 있는 것이 마치 공작새가 꼬리를 편 모양 같다고 하며 물은 맑다 못해 에메랄드 색을 띤다고 하며 그 경관이 좋아 관광지로 되었다. 애석하게도 겨우내 내린 눈이 아직도 호수 얼음 위에 한자나 덮여 있었다.

관광객들은 아쉬움에 호수면 깊이까지 걸어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것으로 위안을 하나보다. 이곳에 기반암은 역시 퇴적암인 세일이 좌우가 중앙을 향하여 경사져 있다. 호수가에 있는 호텔 일층은 고풍으로 꾸며져 있어 거기에 앉으

니 옛날 영국 성주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떤 서양 아주머니는 우아한 자세로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사진 8. Lake Louise 전경

8. Jasper

Banff에서 Jasper까지는 약 300Km나 된다. 일찍이 출발하여 지난밤에 어두워서 보지 못한 경관을 선명한 아침햇살을 받으면서 북서쪽으로 달렸다. 역시 길 양 옆으로 울창한 수목이 가득하고 그 사이를 흐르는 물은 맑고 한천가에는 장마때 떠나려온 고사목들이 즐비하게 있다. Lake Louise에서 1번 국도를 벗어나 93번 국도로 가다 Bow 호수에서 앞을 내다보니 대단층대 사이의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퇴적암층이 좌우로 외향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혼자보기에는 아까웠다. 93번 도로와 11번 도로가 갈리는 The Crossing에서 점심을 먹고 Wilson산이 하도 멋이 있어 사진에 담아 보았다.

Columbia icefield의 일부인 Athabasca Glacier를 가까이 가보았고 빙원으로 가는 특수차인 Ice car는 현지 여건상 운행이 중단되어 대빙원을 볼 수가 없었다.

Maligne 호수로 가는길에 이곳의 암석은 갈은 퇴적암인데 보기에 우중충한 흑색세일로 되어있고 Medicine 호수는 거의 물이 말라 있었는데 Maligne 호수는 아직 눈으로 덮혀 있어 맑고 아름답다는 실상은 볼 수가 없었다.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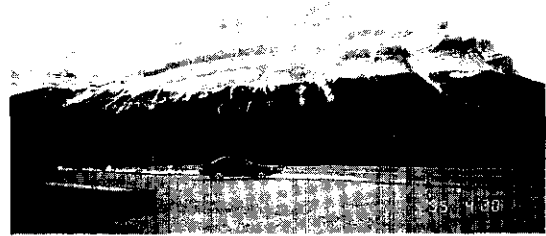


사진 9. Wilson산 전경(퇴적암층)

의 깊이는 96m이고 호수의 길이는 28km라 한다. 암석 벼랑에서 노는 산양은 아슬아슬해 보였다.

Jasper 시내를 들어서면서 역시 산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것이 눈에 띄었다.



사진 10. 모래산 폭포

9. Clearwater

Blueriver에서 1박하고 10시경 출발하여 5번도로로 Clearwater에 이른 시간에 도착하여 안내소에 들려 안내원인 할머니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얻어 가지고 나와 우선 Dowson 폭포인 얇으막한 폭포를 보았는데 수량이 상당히 많았다. 다시 상류쪽으로 올라가 Helmcken 폭포를 보았다. 기반암은 응회암이고 폭포의 낙하고는 135m이며 수량은 $200\text{m}^3/\text{s}$ 로 낙하고에서는 나이가가라 폭포의 2.5배나 된다고 적혀 있었다. 거기서 상류에 있는 Clearwater 호수로 가는 도로는 아직 해동기이고 사력으로 만

들어진 비포장 도로라 교통이 차단되었다. 여기 호수의 물도 이름과 같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사진 11. Helmcken 폭포

Kamloops 시내 근처에 들어서니 그 많은 나무들이 산에 조차 별로 많지 않았다. 도시가 생기면 나무는 어디서나 수난을 당하게 마련이다. Kamloops에서 Merritt 사이는 사력토 지반으로 이루어져 절토사면 곳곳에 원호활동이 일어난 것이 마치 현장 시험이라도 한 것 같은 현상이다. Coquihalla 산을 지나면서 화강암 지대가 나타나 반가운 기분이었고 이 지층은 Hope에서는 험준한 산세를 보여주어 과히 장관이었다.

10. Grouse 산

이 산은 밴쿠버 시내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산으로 산정에 스키장이 유명하다.

Cable car를 타고 올라보니 눈이 질퍽하게 녹아 있고 스키보드를 타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었다. 눈썰매 마차를 타고 산정을 한바퀴 돌았다. 마부 아가씨가 인사소개하면서 경관소개보다도 말에 대한 소개가 이채로웠다. 산아래에는 Cleveland dam이 Capilano강에 Arch 댐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상수도용이란다. 저수는 만수되어 있고 수면가에는 큰 유목들이 많이 보였는데 댐 근처에 방진책을 설치하여 한군데 모아 놓은 것이 꽤 많았다. 여수토에 gate는 로라게이트로 그 방향이 바뀐것 같았

다. 댐 아래 쪽으로 Capilano 현수교가 있고 그 주변을 관광지로 아름답게 꾸몄다.

숲속에 1935년에 심은 전나무가 꽤 커 보였는데 60년 밖에 안 된 것이 몇 백년은 되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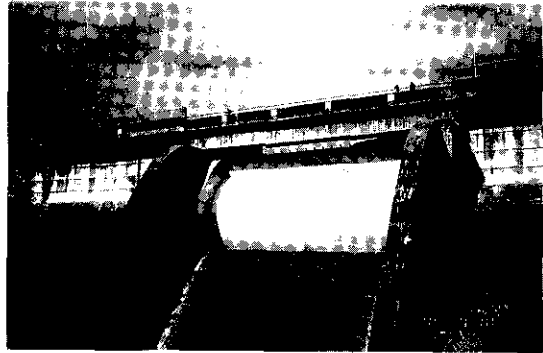


사진 12. Cleveland dam gate

11. Victoria

이 도시는 밴쿠버섬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9시에 출발하는 페리를 타기 위하여 7시에 집을 나섰다. 선착장인 Tsawwassen에 도착한 것이 7시 45분이고 선착순으로 차 대기선이 11 줄이나 되었다. 페리에는 차가 약 400대에 사람은 1300명까지 탈 수 있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목적지까지 운행시간은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선내 식당에서 아침을 부페로 하였다. 항로는 일부 미국해상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선실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두군데나 있어 아이들이 모여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하였다. 또 한번 아이들의 천국임을 실감하였다.

Swartz bay에 내려 남으로 향하여 달렸다.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넓은 들은 대부분 목장이다. 어떤 목장은 말 한필이 한가로이 넓은 들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Butchart garden이란 화원은 시멘트제조용 석회석을 채광하던 석산을 광산주의 부인이 보기가 좋하다하여 암벽에 담쟁이 덩굴을 올리고 바닥에는 흙을 덮고 꽃으로 아름답게 가꾸기 시작한 것이 1904년부터

오늘날까지 가꾸어 유명한 관광 화원이 되었다. 화원 일부에는 일본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17번 국도로 하여 빅토리아 의사당 앞 부두가에 주차시키고 Wax Musium에 들었다. 세계 저명한 사람들이 밀납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었다. 마를린론로도 있고 달에 착륙한 우주인도 있고 저명한 정치인도 있는데 그 가운데 명치 천황이 끼어 있었다. 의회 옆 길가에 큰 암반이 노출되었는데 빙하가 흐르면서 바위를 갈아버린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나 보였다. 이것은 나로서는 큰 수확이었다. 귀로에는 7시 배를 타려고 부지런히 선착장에 나왔는데 우리차 몇 앞에서 그만 끊겼다. 다음 배인 9시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만 했다.



사진 13. 빙하가 흐른 자국

12. Whistler

밴쿠버의 서북쪽 Gabibaldi park에 있는 유

명한 스키장을 구경하러 떠났다.

99번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다 Squamish에 있는 Shannon 폭포에 들었다. 폭포의 낙하고가 335m인 올라다보는 폭포로 물줄기가 좌충우돌 바위에 부딪히면서 부서져 내리는 물 보라가 이는 것으로 시원스러웠다.

Brandy 폭포는 낙하고가 66m이고 유량은 600m³/분이며 기반암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만년전에 형성된 것으로 분출회수는 66m 구간에 다섯번의 분출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폭포는 앞의 것은 위로 올라다보는 것인데 반해 내려다 보는 폭포였다.

Whistler는 유명한 스키장으로 많은 관광객이 모여들었고 표고 2800여m의 산정에는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한개의 점으로 보였다. 젊은 층은 스키보드를 주로 타나보다. 이곳의 기반암은 건운모 편암으로 질이 좋아 건물의 외벽에 장식한 것이 괜찮아 보였다.

13. 멧음말

한달동안의 여행이 더 없이 신비롭기만 했던 것 같다. 가는 곳마다 울창한 숲이며 다양한 암석들은 변화무쌍한 시대의 변천을 보는 것 같아 보람있는 시간들이었다.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곳의 지반들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며 글을 맺는다.